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39호
Tuesday, July 15 2025 A

미, 무역·군사서 수십년 돈 뜯겨

SNS에 관세·방위비 정당성 강조
백악관 "관세, 내달 1일 진짜 부과"

FIFA 회장과 함께 축구 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뉴저지주에서 열린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경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오른쪽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무역(그리고 군사)에서 뜯겨왔다"며 "이 때문에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더 이상 그리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들은 앉아서 '수십 년간의 무임승차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기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줘서 감사하다. 매우 감사하다'고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만족할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예고한 대로 오는 8월 1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서한이 협상용인지, 실제 부과할 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좋은 합의를 얻지 못하면 진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며 조속한 협상을 압박했다. 더 이상의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언제나 겁 먹고 도망친다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내세우다가 막판 되물리는 모습을 비꼬는 밈)는 없다는 것이다.

강태화 기자

"북한 이탈주민은 한반도 평화통일 디딤돌"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제2회 기념행사 '성료'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린다 한)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13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안 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제2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행사에는 린다 한 회장과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클래런스 램 메릴랜드 상원의원, 백대현 통일관, 피터 오 자유조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탈북민과 평통위원, 그리고 동포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주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기조강연,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보고와 성공적인 정착 사례 발표,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린다 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워싱턴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이탈주민의 통일 포럼과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고 큰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은 물론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범동포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램 상원의원은 린다 한 회장과 이문형 간사에게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발전을 이끈 공으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만찬에 앞서 한국문화예술원 변재은 원장의 축하공연은 장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7월14일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김성한 기자

13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가나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시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드로 농산물 분야 일부를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방어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지난 5~10일 미국과의 협상 이후 뉘앙스가 달라졌다.

미국은 현재 관세 협상을 벌이는 국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에는 쌀 개방 압력이 심하다.

미국은 한국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블루베리·체리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구 기자

VA '파란봉투 프로그램' 도입

버지니아 주립 경찰국(VSP)이 자폐 스펙트럼 운전자가 교통 단속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파란 봉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자폐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받을 경우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파란색 봉투를 제시하면 된다.

자폐 운전자가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에, 소통 장애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에 불편함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지적 장애, 기타 질환을 가진 운전자다.

» 2면 '파란봉투' 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손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폿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8/11 ~ 8/15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강경한 '젊은 투톱' 밀러·콜비… 이민·안보정책 쥐락펴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레저업계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인 이민정책으로 유능한 근로자들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민자 노동력 의존도가 큰 농업 등 분야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의 전화 보고 다음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에 미 국토안보부는 곧바로 해당 업종에 대한 이민자 단속 중단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흘 만에 뒤집어졌다.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는 스티븐 밀러(39)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단속을 되려 전속력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편 결과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무기 비축량 부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7일 말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어용 무기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몰랐다. 무기 공급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주도한 인물은 엘브리지 콜비(45) 정책담당 차관이며 백악관 보고를 거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도 몰랐다고 한다.

밀러 부비서실장과 콜비 차관의 막강 위세를 드러내는 장면들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쥐고 흔드는 '젊은 실세'로 밀러와 콜비가 워싱턴 조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밀러는 강경 이민 정책과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콜비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두 사람이 쥐락펴락하는 셈이다. 둘을 잇는 코드는 '아메리카 퍼스트'다.

밀러는 자타 공인 가장 극단적인 트럼프주의자로,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무슬림 입국 금지, 난민 수용 제한 등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참모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당시 밀러의 강경 이민 정책은 종종 벽에 부딪히곤 했다. 가령 2017년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분리 정책을 강행하려 하자 당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부처 직원들에게 "밀러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이 있었다.

한 트럼프 참모는 "국토안보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는 밀러"라고 말했고, 보수 법학자 에드워드 휠런은 밀러를 두고 "사실상 법무장관"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운동 때 "밀러에게 이민 정책을 맡기면 미국 인구는 1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콜비는 중국 패권 억제에 올인하는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별명은 모든 핵심 인사들을 잇는 가교라는 뜻의 '브릿지(bridge)'다.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외교안보 전략가로 평가받는 그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됐다. 장관보다 두 직급 아래지만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을 꿰뚫는 몇 안 되는 참모인 콜비가 갖는 실제 권한과 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상이라는 얘기가 많다.

미국 제일주의의 강력한 신봉자인 밀러와 콜비는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사실상 '접수'한 상황이다. NSC는 대규모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정책 조율 기능이 무력화됐는데, 이러한 권력 공백 상태를 두 핵심 실세가 파고들어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형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페어팩스 실업자 2021년 이후 최대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5월 실업자가 2만 17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알링턴 카운티와 폴스 처치 시티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주 전체적으로 16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VA·MD 구조대 텍사스 홍수 현장 파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국이 태스크 포스팀을 결성하고 텍사스 홍수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구조대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실종 및 사망자는 최소 120명에 이른다. 구조대는 구조견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체중 미국인 20%, 비만으로 분류된다

미국내과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에 의하면, 유럽 등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비만 분류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과체중(overweight)으로 분류했던 미국인의 20% 정도가 비만(obese)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유럽 비만 연구 협회(EASO)는 체질량 지수(BMI) 외에도 체지방량의 건강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18-79세 사이의 미국 성인 4만4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연구를 통해서도 새로운 분류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미국인은 고혈압(79.9%), 관절염(33.2%), 당뇨병(15.6%) 및 심혈관 질환(10.5%) 등의 합병증을 지니고 있었다.

중미 3개국 출신 송금액 더욱 많아져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 미국 이민자들의 모국 송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이민자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으나 2024년 23%로 증가했다. 이들의 작년 송금액은 450억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멕시코 출신 이민자 송금액은 10년 전에 비해 12% 감소했다.

김옥채 기자

메릴랜드·버지니아 면세 프로그램 실시

'백투 스쿨' 용품 대상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정부가 가을 학기를 맞아 '백투 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Sales Tax Holiday)을 실시한다.

메릴랜드주는 오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각종 학용품을 구입할 때와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할 시 6%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백팩 구매 시 처음 40달러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 스웨터, 셔츠, 슬랙스, 청바지, 드레스, 가운, 속옷, 벨트, 부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에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판매세 면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세 5.3%를 내지 않고도 학용품, 의류, 신발, 허리케인 비상 대비 용품, 에너지 스타를 구입할 수 있는 데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학용품(20달러 이하), 의류.신발(100달러 이하), 허리케인 대비 품목(60달러 이하), 휴대용 발전기(1000달러 이하), 가스 구동 전기톱(350달러 이하) 등 다양하다.

김성한 기자

» 1면 '파란봉투' 에서 이어집니다

운전자는 파란 봉투에 운전면허증 사본, 보험 증명서, 차량 등록증을 넣어야 한다.

당국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운전자의 보호자가 모의 상황 하에서 파란 봉투를 제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란 봉투를 받은 경찰관은 차분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추가 처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불빛, 소리 등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고음을 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봉투 내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파란색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등이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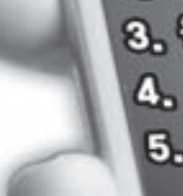
7월 15일(화) 88-73

16일(수)	89-74	19일(토)	89-73
17일(목)	92-75	20일(일)	91-73
18일(금)	89-73	21일(월)	89-75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T.703-449-7629)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풀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intelisystems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몰 | 이메일 마케팅

페어팩스 인구·주택 모두 노후화

소득불평등 심화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연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정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주택은 43만7144채로 1년 전에 비해 1.06% 증가에 그쳤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택 증가율이 연평균 4% 이상이었다.

1950년 2만6558채에서 1960년 6만9181채, 1970년 13만768채, 1980년 21만5671채, 1990년 30만2464채, 2000년 35만89960채로 증가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으면서 주택 연식이 쌓이고 있다.

1970년 이전 건설된 주택비율이 25.5%에 달했다.

애난데일이 포함된 메이슨 디스트릭은 1970년 이전 주택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센터빌이 포함된 셜리 디스트릭이 4.5%로 가장 낮았다. 950년 주택의 80% 정도가 싱글하우스였으나, 지금은 45%, 2050년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65세 이상 인구는 18만6천명이지만, 2050년에는 24만9천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15.6%에서 1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중간가구 소득은 14만1553달러였으며 전체 가구의 33%가 20만달러 이상이었다.

23%는 7만5천달러 미만이었다.

중간가구 소득은 2003년 8만753달러에서 80% 가까이 증가했다.

워싱턴메트로지역 중간가구 소득은 12만1569달러, 버지니아는 8만9931달러, 미국 전체는 7만7719달러였다.

페어팩스 카운티 빈곤선 소득 가구는 6%였다.

한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13년 0.42에서 현재 0.43으로 증가했다. 지니 계수는 0에서 1사이 계수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김옥채 기자

메릴랜드 몽고메리, 농장 체험 운영

26-27일 27개 농장 참여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여름 방학철을 맞아 2025년 농장 투어 체험 및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오는 26-27일 이틀 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장 투어는 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고 가까운 곳을 방문해 현장을 직적 살펴보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7개의 농장을 비롯해 과수원, 양조장, 와이너리가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는 558개의 농장과 350개의 원예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데, 매년 경제적으로 2억8200만 달러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농장 규모는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는 9만3000에이커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농장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음식, 음료 또는 일부 활동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 중 버스 투어의 경우 3일 전에 농장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더 자세한 정보는 투어 1주일 전에 몽고메리카운티 농업국(301-590-2859)로 문의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에서 크레용으로 고발한 '북한 대학살'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미술전-통일강연 성료

문국환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가 장길수 가족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은 13일 애난데일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제2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기념해 평화통일 강연 및 북한 대학살 고발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전시회는 탈북 소년화가 장길수와 그의 가족이 그린 작품 40여 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장길수, 북한 대학살을 그리고 고발하다'라는 제목의 작품에는 '공개처형', '가마솥의 인육', '쥐 먹은 소년', '어느 가장의 죽음', '군인은 약탈자'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북한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미술전을 준비한 문국환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악랄함을 폭로하는 것이 이번 전시회에 기본 목적"이라며, 장길수 가족의 용기는 탈북자들의 고통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술전시회에 앞서 열린 통일 강연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올리비아 에노스 허드슨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날'과 관련된 주제로 미국 정부와 북한 인권, 북한 인권 침해와 수익 창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인권 보호를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기자

AI 이용해 규제 혁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에이전트형 AI' 시범 프로그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의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천 페이지의 규정을 분석해 중복, 모순, 과도하게 복잡한 표현을 식별할 예정이다.

영킨 주지사는 "우리는 이미 주 정부 규제의 25%를 줄였는데, 앞으로 AI를 이용해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AI 도구를 활용해 모든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킨 주지사는 자신의 임기 내에 규제를 2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목표 시한을 6개월 앞당겼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이용하면 규제를 3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 VA 선거 캠페인 나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에 직접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선거 자금 모금 만찬 행사에 참석해 오는 11월 치뤄지는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돕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 나선 것은 2024년 대선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에 실망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면 민주당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 침해당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 말해야 하며 절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말하지 못하게 억누른다면, 당당히 나서서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누군가 메시야가 나타나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면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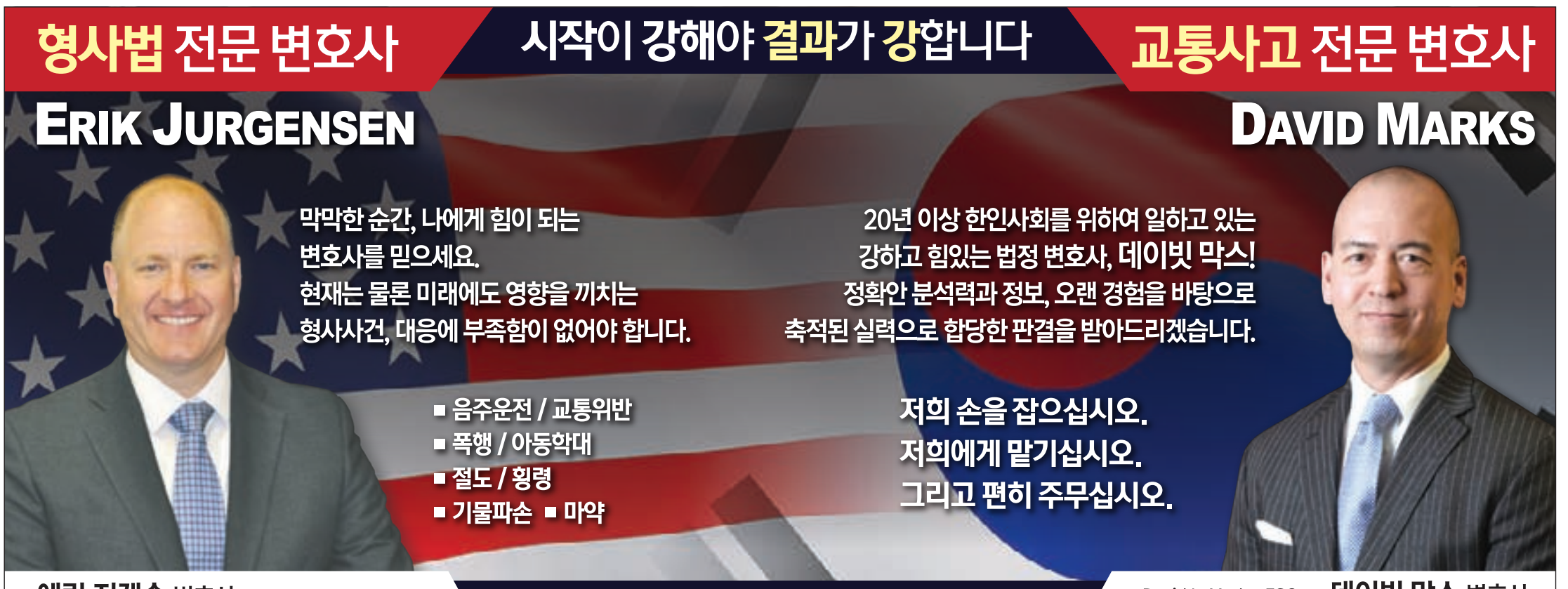
김옥채 기자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8월15일 오전 아카페서 워싱턴 통합 노인연합회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는 오는 8월15일 오전 10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카페 시니어 건강복지센터에서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노인연합회는 열흘 뒤인 25일 정오에는 H마트 버크점에서 광복절 기념 '사랑의 쌀' 전달을 80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다.행사에 앞서 노인연합회는 함께 동참할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미래는 글로벌 인재 확보가 좌우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인재 4대 강국' 출간

중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인재 육성 전략 비교 분석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 미래가 좌우된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 소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 '인재 4대 강국(The Four Talent Giants·사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인재 개발 전략을 심층 분석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재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신 소장은 "각국이 문화적·제도적 환경과 전략적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구성해왔고, 이 차이가 경제적 성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11일 신 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제안한 '인재 포트폴리오 이론'과 4가지 인재 전략,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들어봤다.

지난 11일 본지와 줌으로 인터뷰하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 소장.

-인재 포트폴리오 이론 정립 계기는.

"중국, 일본, 인도, 호주의 성장 원인을 탐색하다 보니 각각 다른 인재 전략이 눈에 들어왔다. 이를 금융 투자 관점에서 봤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시황이나 유행 산업군에 맞춰서 하지 않나. 인재 양성도 똑같다. 국가가 자국과 해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조합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진다."

-기존 접근법과 차별점은.

"인재 육성 전략을 네 가지로 나눴다. 우선 브레인 트레인(Brain Train)은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다. 브레인 게인(Brain Gain)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브레인 서큘레이션(Brain Circulation)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경력을 쌓고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링크(Brain Linkage)는 해외 거주 자국 출신 인재와 협력을 의미한다."

-4개국 중 눈여겨볼 인재 전략국은.

"앞으로 눈여겨볼 국가는 인도다.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띈다. 스탠퍼드대 공대와 경영대 외국인 교수 중에서도 인도계가 가장 많다. 한국은 인도계와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과거에 한국 인재 전략만을 다룬 책을 썼고, 이번 책은 각 전략에서 뚜렷한 특성을 가진 4개국(일본, 호주, 중국, 인도)을 대표 사례로 삼았다. 일본은 브레인 트레인, 호주는 브레인 게인, 중국은 브레인 서큘레이션, 인도는 브레인 링크 전략에 특화돼 있다."

-한국 인재 육성 문제점은.

"한국은 보완재보다 대체재를 키우는 분위기다. 다양한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 또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낮은 교수 연봉과 심각한 관료주의로 인재 유치 및 육성에 한계가 있다."

-개선 방법은.

"한국 정부와 교육 기관들이 글로벌 인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늘려 인재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유학생들이 귀국을 꺼리는 이유는.

"과거엔 생활 수준 차이로, 최근엔 삶의 질 차이로 유학생들이 한국행을 피한다. 1960년~70년대에는 양국의 생활 수준 격차가 크다 보니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고연봉보다 삶의 만족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귀국을 꺼린다."

-숙련 외국인 인재의 한국 유입 부족한데.

"우선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는 정치권의 눈치와 외국인의 어려운 한국 정착 여건이 문제다. 여전히 타인종에 대한 차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재 활용 전략의 핵심은.

"자국 인재에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차원에서 인재풀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인재상은.

"능력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고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 글로벌 사회에서 융합하고 협력할 줄 아는 인재가 중요하다." 신 소장은 20년 만에 APARC 소장직에서 물러난다. 오는 8월 퇴임 후에는 한국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스탠퍼드 넥스트 아시아 정책 랩'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글·사진=김경준 기자

허츠, 타이어 미세 긁힘에 440불 청구

〈렌터카 업체〉

반납 전후 사진 수천장 비교
렌터카 흠집 이 잡듯 AI 검사
고객 확인 없이 앱으로 통보

렌터카 업체 허츠(Hertz)가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손상 감지 시스템을 국내 주요 공항에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반납 후 사람이 보기 어려운 흠집에 대해 AI가 자동으로 손상을 판독하고 고액의 요금을 부과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AI 고화질 스캐너를 도입했고, 현재 뉴어크, 샬럿, 피닉스, 탬파, 휴스턴 등 6개 공항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AI 시스템은 입출차 시 수천 장의 차량 사진을 촬영해 반납 전후 상태를 비교 분석하고 손상 여부를 자동 판별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흠집에도 청구가 이뤄지면

허츠가 사용 중인 AI 차량 손상 감지 시스템. [유브이아이 캡처]

문 흠집에 대한 195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이 중 50달러가 수리비였고 115달러는 '감지 및 처리 수수료'였다. 로저스는 "흠집이 보이지 않았고, 직원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허츠는 AI 감지를 근거로 청구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수료 청구 방식이 고객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츠는 "전체 차량의 3% 미만에만 청구가 발생하며, 고객이 이의 제기 시 직원이 보고서를 재검토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상 판단과 청구는 일단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며, 비용 산정 기준이나 감지 수수료의 구체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AI 시스템 운영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들은 특히 '감지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가 내부 시스템 운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익옹호 관계자는 "수리비와 별도로 감지 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청구"라며 "이해당사자의 검토나 동의 없는 요금 청구는 불공정 약관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업체 유브이아이(UVeye)는 "사람보다 5배 더 많은 손상을 감지해 6배 많은 손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식스트(Sixt)는 AI 기반 스캐너 '카게이트'를 사용 중이나 사진 검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에이비스(Avis)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등은 여전히 사람이 점검하는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남수단 추방설, 불법체류 한인 사실은 한국행

일부 언론 오보로 혼란

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 가석방됐으나 불법체류자인 탓에 출소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됐던 한인 K씨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한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추방과 관련, 최근 일부 한인 언론들조차 K씨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K씨는 지난 5월 20일 남수단행 항공편 탑승 예정자 명단에 올랐지만 탑승 직전 제외됐었다.〈본지 5월 22일 A-1면〉 이후 그는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지난달 27일 시애틀발 델타항공편을 통해 ICE 요원 2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들의 한국행 출국일이 6월 27일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아들이 한국으로 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K씨의 여권은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현석 영사가 6월 초 ICE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씨의 부친은 "6월 4일 김 영사가 '여권을 ICE에 전달했다'고 알려주고 직접 면회도 다녀오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K씨의 부친은 지난달 9일 한국으로 먼저 가 아들의 입국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K씨를 제외한 8명을 5월 남수단행 전세기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추방됐다는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며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억류됐다가 최근 남수단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남수단 국적자는 한 명 뿐이다. 강한길 기자

중앙일보 구독 신청 : 703-281-9660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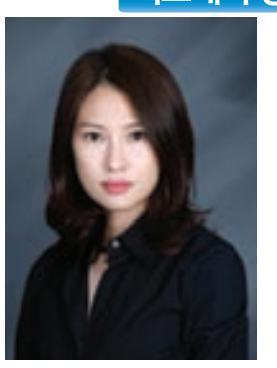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트럼프, 엡스타인 음모론 역풍… "공화당 40석 잃을 것"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최근 마가들이 제기해 온 '제프리 엡스타인 음모론'이 근거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다. 불만은 발표를 주도한 팸 본디 법무장관에서 본디 장관을 옹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까지 옮겨가는 분위기다. 마가 진영은 "엡스타인 문제로 트럼프가 마가 지지를 잃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을 것"이란 경고까지 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가 진영이 주축인 청년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州) 탬파에서 연 '스튜던트 액션 서밋' 행사에선 백악관과 법무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래햄이 "엡스타인 수사 결과에 만족하는가"라고 묻자, 행사장은 거센 야유로 가득 찼다. 마가 진영 인사들은 팸 본디 법무장관을 해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세력과 동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청년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주최한 '스튜던트 액션 서밋'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AP=연합뉴스]

이 같은 반발은 지난 7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2쪽 자리 공동 발표문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본디 법무장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타살 증거가 없고, 그가 작성한 '유력 인사 고객 명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상습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직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미국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엡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마가 진영은 엡스타인의 인맥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해 엡스타인을 제거했으며 법무부, FBI, 중앙정보국(CIA) 등 이른바 '딥 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엡스타인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 이후 마가 진영은 폭발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이 더 증폭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며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민주당이 퍼뜨린 정치적 술수라며 "팸 본디(법무장관)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자"고도 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의 분노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는 WP에 "엡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의 근저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엡스타인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이가 트럼프 대통령이란 점이 작용한다. 자신이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면 관련 문건을 당장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세력의 호응을 얻어냈다. 본디 장관도 지난 2월 폭스뉴스에 "엡스타인 고객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해 이들의 기대를 키웠다.

이에 마가 진영 비판의 칼은 트럼프로 향하고 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내가 표를 준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엡스타인 문제로 마가 지지층의 10%를 잃게 되면 공화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고, 대선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기자

"2살 아기가 니코틴 중독됐다"

미국서 유행하는 이 파우치 뭐길래

미국에서 최근 니코틴 파우치(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흡연한 듯한 효과를 내는 제품·사진)가 유행하면서 이를 입에 넣은 영유아들의 니코틴 중독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전역 중독센터들이 보고한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 13만4663건을 분석한 논문이 14일 게재됐다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이 중 76%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니코틴 파우치, 씹는 담배, 보통 궐련,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 껌이나 캔디 등에 사고로 노출된 경우였다. 논문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는 2020년에 10만명당 0.4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만명당 4.14명으로, 3년만에 8배 증가했다. 영유아 니코틴 중독 사례 증가는 니코틴 파우치 판매량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니코틴 파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연보조제로 승인을 받은 제품은 아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흡연건강국(트럼프 행정부 들어 폐지)이 2021년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 파우치 판매 액수는 2016년 71만달러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5개월여만 따져도 2억1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니코틴에 노출된 영유아들은 대부분 의학적 조치 없이도 건강 이상을 겪지 않았으나, 39명은 호흡곤란이나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는 1세, 1세 반 안팎인 소년 2명이 있었다. 이들은 액상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유 액상을 섭취한 후에 숨졌다.

AAP 대변인은 어른들이 니코틴 파우치나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회사 복귀한 머스크 임원진부터 교체

WSJ "보스 돌아왔다는 걸 보여줘"

"태양이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에서 물러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렇게 평했다.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린다 야카리노 CE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취임 2년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지난달 테슬라에선 북미 및 유럽 생산 담당 오메드 아프샤르 부사장 등 최고위급 임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졌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사 교체를 자주 했다. 올 초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잠시 뜸했다가 다시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WSJ은 "최근 회사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떠난 것은 보스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준다"며 "머스크와 일한 사람들 사이에선 '살아남으려면 태양(머스크)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격언처럼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머스크가 예고한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머스크가 신당 창당에 일회성 투자가 아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윤서 기자

40% 관세폭탄 맞고도 "진심 감사"… '웃픈 지구촌'

다른 나라와 교역로를 뚫는 정공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해 트럼프의 진노를 피한다. 미국 빼고 뭉치자고 깃발을 높이 드는 곳도 있고, 반대로 40%의 고율 관세를 맞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한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란 격랑을 맞이한 국가들의 다양한 전략을 서방권 언론들이 조명하고 나섰다.

정석은 미국 외의 교역로 개척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무역을 위해 독일과 호주에 특사를 보낸다"며 1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향후 5년 내에 양국간 교역량을 현재보다 70% 증가한 2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 요구를 맞춰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려는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일 워싱턴에 위치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베트남은 미국 수출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타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법 역시 리스크가 있다. 바로 "조기 타결로 많은 것을 얻었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른다는 점"(파이낸셜타임스·FT)이다. 또 여전히 세부 사항이 안개 속이라는 점도 위험 요소다. 베트남은 이번 관세 합의에서 중국 등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소재를 베트남에서 가공한 후 미국에 수출한 상품에 대해선 관세를 어느 만큼 부과하는지, 중국산 소재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환적상품으로 분류되는지 등 세부 사항 대해 미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공식 발표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교역로 개척에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체계에 반기를 치켜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EU 내에선 미국과 중국을 뺀 무역 구조를 짜는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EU는 된서리를 맞은 미국의 전통 우방국 캐나다와 일본에 관세 공동 대응을 타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협력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에 전세계가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40% 관세 폭탄을 맞고도 유일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되레 기꺼워한 이채로운 나라도 있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11일 트럼프의 관세 서한에 "영광"이라며 이같은 성명을 내놨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칭송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얀마에 송출되던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론에도 동조하는 문구를 넣었다. 그간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미얀마 군부가 트럼프의 관세서한을 군정 승인의 계기로 해석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트럼프가 불붙인 유럽 자강론…마크롱도 "2027년까지 국방비 100조원" 선언

독일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유럽에서 국방비 증액을 통한 '안보 자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오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640억 유로(약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14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6년에 35억 유로(약5조원), 2027년에 30억 유로(약4조원)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 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당시 320억 유로(약51조원)와 비교해 10년 만에 국방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2029년까지 도달하려던 수준을 2년 더 앞당긴 것이기도 하다.

앞서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1620억 유로(약260조원)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2.5%, 2029년 이후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력 방위 요구에 위기 의식을 느낀 유럽 주요국이 잇달아 자체 군사력 증강에 나선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프랑스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기 대부분은 프랑스 국방 산업체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약 비축·대량살상무기·드론·우주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활용한 핵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유럽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보유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 중인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유럽 방산업계가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4일 발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방산업계가 약속한 바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탄약, 드론, 전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독일이 전차, 잠수함, 드론, 전투기 등을 2030년대까지 장기적으로 조달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기가 공급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VOA 공백, 중국 보도가 장악"…트럼프 조치 여파 전방위 확산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정부 후원 미디어 기관에 대한 축소 조치 이후 중국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국영방송들이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서 그 공백을 메우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중국 국영 방송이 VOA를 대체해 각국 보도를 장악했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선 VOA가 사라지고 중국중앙방송 CCTV 콘텐트가 주간 코너로 편성됐으며, 태국에서는 중국관영방송 CGTN 콘텐트로 교체됐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나이지리아에선 중국 국제라디오가 영어 외에도 하우사어, 요루바어, 이보어 등 현지어로 방송하며 현지화 공략에 나섰다. 에티오피아 국영방송에는 '중국 시간'이라는 이름의 코너가 신설돼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 중국 제작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일부 외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방송 편성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고 보며 양국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방송 교체가 아니라, VOA의 공백을 조직적으로 메우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로버트 달리 윌슨센터 미·중 연구소 소장은 WSJ에 "중국 내에서도 VOA는 영향력을 가졌던 매체였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 여론에 영향을 줄 기회를 미국이 스스로 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에메카 우메제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대학 연구원은 "중국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짚었다.

중국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후시진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은 SNS에 "미국의 반중 이념 요새가 내부에서 무너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중국 보도에 대한 흠집 난 실적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그간 중국 문제를 다룰 때 공정하거나 정확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꽤 있었고, 그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뜻이다.

한지혜 기자

로고스 법률 그룹

LOGOS LAW GROUP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틀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비지니스 / 부동산
- 비지니스 설립 / 매매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센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쉽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틀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20th Annual Art Exhibition

Arirang Korea

"아리랑 코리아"

Korean Folk Photo Exhibition and Korean Dessert

박송희 셰프 와 함께하는 한국 민속 사진전과 한국 디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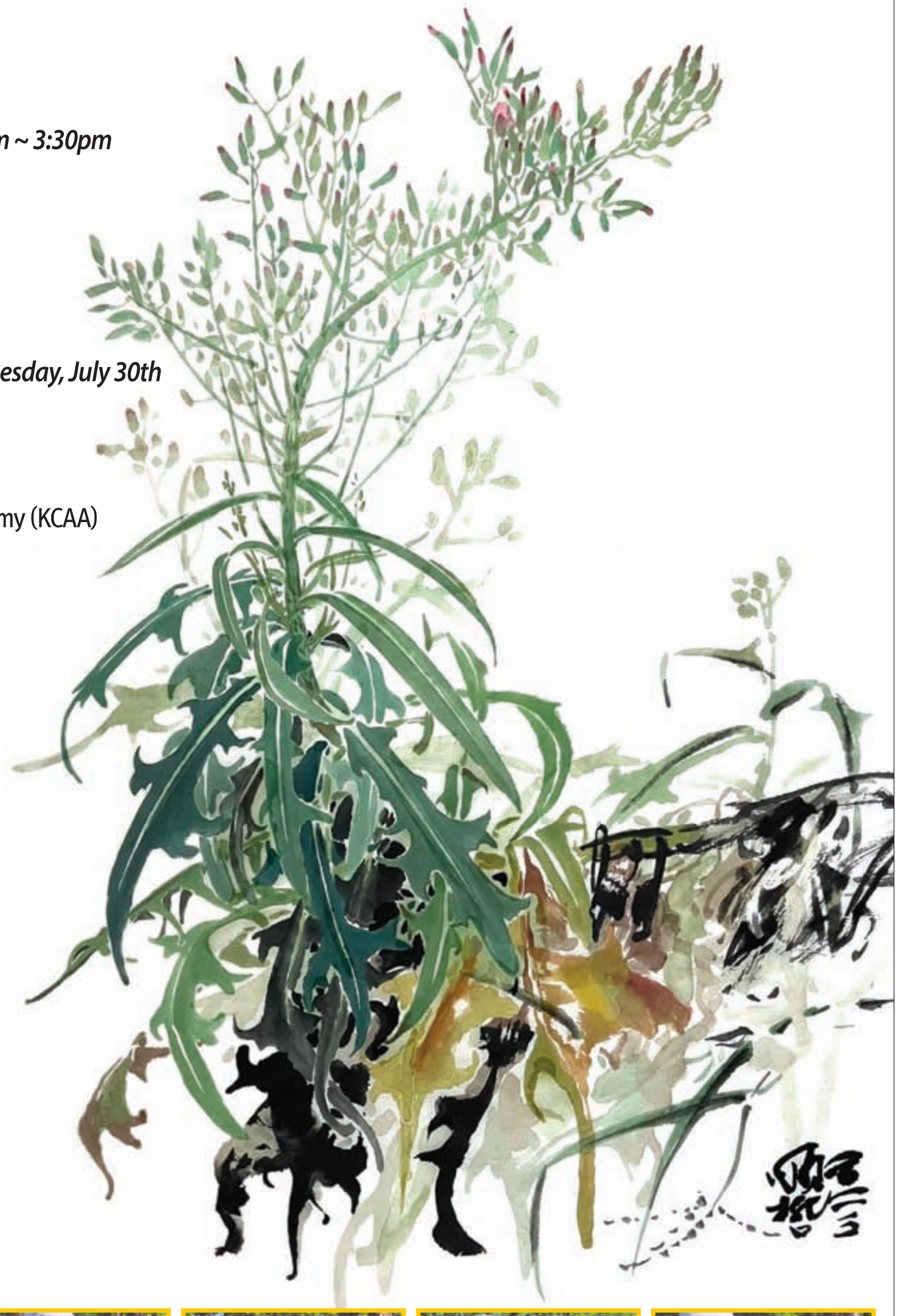
Reception:
July 20th (Sunday) 1:30pm ~ 3:30pm

Additional Information:
Attendance Reservation
(예약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Kacaf.org@gmail.com
703-200-9390

When:
Sunday, July 20th ~ Wednesday, July 30th

Where:
KCAA T/P Gallery

Host:
Korean Cultural Arts Academy (KCAA)
https://www.kacaf.org



박송희 셰프 (Park Song Hee: Chef)

Organizer: Korean American Cultural Arts Foundation(KACAF) 한미문화예술재단
Korean Association Southern Maryland(KASM) 남부메릴랜드한인회

Sponsors: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健康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Special 7월 SUMMER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튼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의 기운 산삼 배양근과 신이내린 녹용의 만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엿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쳐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meditree 코팅식이섬유 쾌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트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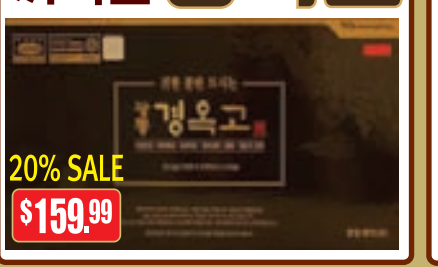
징코크린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홍삼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3+1 스페셜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감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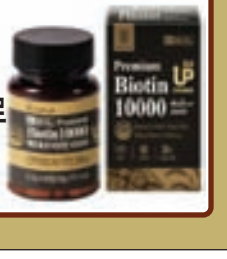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빽빽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Umeke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프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패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치킨·만두’ 만 남은 청문회

청문회 첫날부터 고성·충돌·파행
장관 후보 의혹·정책검증 부실

강선우 “차에 음식 남긴 것” 해명
당시 보좌진과 메신저엔 “버려줘요”

자료 미제출, 증인 채택 불발로 ‘맹탕 청문회’ 우려 속에 14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초반부터 고성과 싸움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회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오전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삼행시 팻말을 들고 기다렸다.

‘강선우 OUT’ 팻말을 노트북 등에 붙이며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피켓 붙이고 하는 게 맞느냐”고 따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13분 만에 정회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물이 가득한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남이 음식 먹은 것을 처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분리수거 갑질 의혹을 따진 것이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언론에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강 후보자가)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내려온다. 상자를 보면 치킨 먹고 남은 것,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것, 일반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간 적이 있다”며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내린 것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추가로 공개된 강 후보자와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메시지엔 쓰레기 봉투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었다.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려 줘요”라고 하자 해당 보좌진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이었다.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여의도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다”며 “급박해서 조언을 구한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강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작성됐던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청문회장에 띄우며 “보좌진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짓말했다. 검증 방해, 국민 기만행위”(조은희 의원)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색출과 보복이 이뤄지는 것이 과연 약자를 위한 정당이냐”며 “메시지를 보내놓고 발뺌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다.

여러 후보자가 위법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열린 청문회 4건 중 3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지막까지 증인 0명으로 마무리됐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증인 2명 중 한 명만 나왔다.

이날 오전 배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반발 의미로 국민의힘이 ‘최민희 독재 OUT’이란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개의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청문회는 소동 끝에 겨우 다시 시작됐다.

과반 의석(167석)의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인청내란을 저지르니 지지율이 그 모양”이라며 “곧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힘 OUT”이라고 적었다.

심새롬·남수현·조수빈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 한반도부도 대안”

통일장관 후보 청문회서 답변
“북한이 주적이란 말 동의 못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화통일부’를 제안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좋은 대안”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강대강의 산물”이라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면서다.

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만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이를 내부 문제 간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으로 보는 건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다.

박현주 기자

이진숙 논문으로 제자 박사학위? 진짜면 학위 무효 사유

본인-제자 논문 표절률 최대 48%
교신저자 제자는 박사학위 받아
검증단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
이진숙 측 “내일 청문회서 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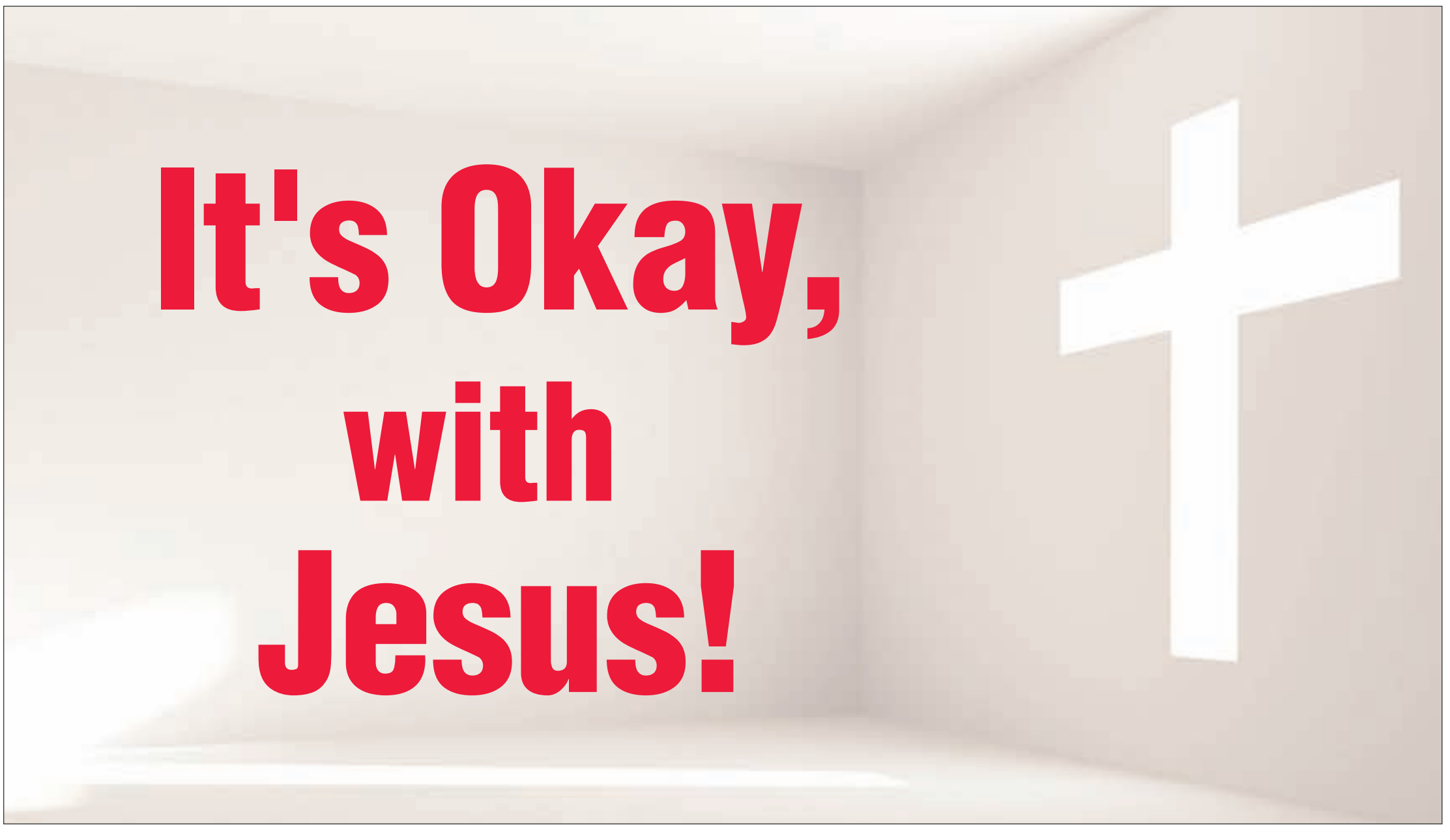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쓴 논문으로 제자에게 박사학위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4년 한국색채학회에 ‘실내 거주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분석’ 등 논문 2편을 발표했다. 두 논문 모두 이 후보자가 1저자, 제자 A씨가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실내 색채변화에 따른 심리·생리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씨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겹쳤다. 이 후보자의 ‘실내 거주공간 평가분석’ 논문과 A씨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내에 적용된 색채에 따라 거주자의 감성어휘를 분석한 실험의 결과값이 대부분 일치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두 논문 간 표절률은 48%였다. 학계에선 통상 20% 이상이면 표절을 의심한다. 김민전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1저자라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성·주도성을 상실해 학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박사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낸 경우도 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5월 한국색채학회지에 ‘건축공간 표면요소에 대한 질감과 색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 이는 교신저자 B씨가 그 석 달 전 박사학위를 받은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표면요소의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 실험 개요부터 피험자 구성, 평가변인 및 평가항목 선정, 분석 결과, 그래프, 표, 결론까지 상당 부분 동일했다. 카피킬러 표절률은 40%였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제자가 주도적으로 안 쓴 게 돼 학위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후보자 1저자 & 제자 교신저자 논문→제자 박사학위 논문’이거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이 후보자 1저자 & 제자 교신저자 논문’으로 활용된 것만 최소 10건이다. 석사학위 논문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6일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에 참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이날 이 후보자 논문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 중이다. 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조사한 결과, 표절률 20% 이상 논문이 14개였다. 일부 논문은 표절률이 56%에 달했다.

김민욱·김창용·이보람 기자



내란특검, 윤석열에 '일반이적죄' 적용 … 드론사 압수수색

'북한과 공모관계' 입증 쉽지 않아
공모와 무관한 일반이적죄 적용
김병주 "북으로 무인기 7대 보내"
윤 강제구인 불발, 오늘 재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총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드론작전사령부 정문.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자택,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외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에게 적용된다.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북한과의 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팀은 영장에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보안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하고 해당 장교를 참고인 조사했다. 김 드론사령관에게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는 2024년 10월 3일(2대), 10월 8일(4대), 11월 13일(1대)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구치소의 인치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해 실패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김보름·나운채 기자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김범수·조현상 17일 소환

김건희 집사 회사에 우회 투자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엔 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창업자) 등 전현직 기업 수장 4명에 대해 17일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대상에는 김 창업자 외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14일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4개사에 17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집사 게이트는 형사사건, 오너리스크에 처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가 대주주였던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1차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증권금융은 50억원, HS효성은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키움증권은 10억원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적법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투자금 중 2023년 외주용역비로 집행된 92억원이 김 여사 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김씨가 부인 명의 차명회사를 통해 보유한 IMS 구주 매입에 사용된 46억원 역시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부인 역시 소재 불명인 것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별도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측근인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측근인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재건 포럼에 참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부에 알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본 혐의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이 지난 10일 소환조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 없다" "김 여사는 모른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을 구속한 뒤 김 여사 및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규·전민구 기자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분도 있어" 고심 깊어진 여권

강선우·이진숙 후보 논란 커지자
우상호 "청문회 뒤 여론 종합 검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각각 보좌진 갑질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두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여권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을 앞세웠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었던 두세 사람에 의한 언론 제보로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통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이) 1년에 6.8명이 교체된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전원 통과하는 걸 희망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원 다 낙마하지 않는다'가 대원칙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낙마할 수 있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도 점검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현실적으로 전원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몇몇 문제 있는 후보자까지 전원 통과 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할 텐데, 그건 민주당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갑질 논란은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 얼마나 더 여론이 악화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조수빈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왼쪽)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회 전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노트북 피켓을 떼려는 국회 경위와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쌀은 양보 못할 레드라인 … 정부 "LMO감자 수입 논의 가능"

〈유전자변형작물〉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허용 요구
정부 "소고기는 미국에 실익 적어"
전농 "미국 통상압박에 굴복 안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면서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고,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대상국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민이 크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소고기와 LMO 감자 수입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LMO 감자 수입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안전성 검사만 남았고, 현재 수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과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확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 8단계 절차 가운데 3단계(예비위험평가)에서 멈춰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미국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로 번진 전례로 볼 때 미국산 소고기 전체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거부감을 높일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었다.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쌀 수입은 양보가 쉽지 않다. 한국은 2015년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제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TRQ 물량(매년 40만8700t) 중 32.4%를 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조정하려면 다른 국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선 "쌀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분야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면할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날 여 본부장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 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제2의 한·미 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강태화 기자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39개, 외환위기 후 최악

인력채용 전년보다 11% 줄었는데
30세 미만 청년사업자 휴·폐업 증가

6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외환위기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고용노동부의 '6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반면에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7000명으로 11.9% 증가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39로 나타났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9개뿐이라는 의미다. 이는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6월(0.25) 이후 가장 낮다. 2022년 0.78까지 올랐다 꾸준한 내림세다. 구인배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상시 임금 근로자만 고려한 통계로, 현재 고용시장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올해 1~5월도 0.28~0.43으로 전년 대비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다.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확산,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이 맞물렸다. 재계 23위인 에쓰오일은 경영 불확실성 확대, 사업 실적 저하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진행 중이던 소매 영업직 공개 채용 절차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임금 근로자'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달 155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9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1000명 감소하며 5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식어가는 경기에 창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 청년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가동 사업자)는 월평균 35만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4분기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창업하는 사람보다 휴·폐업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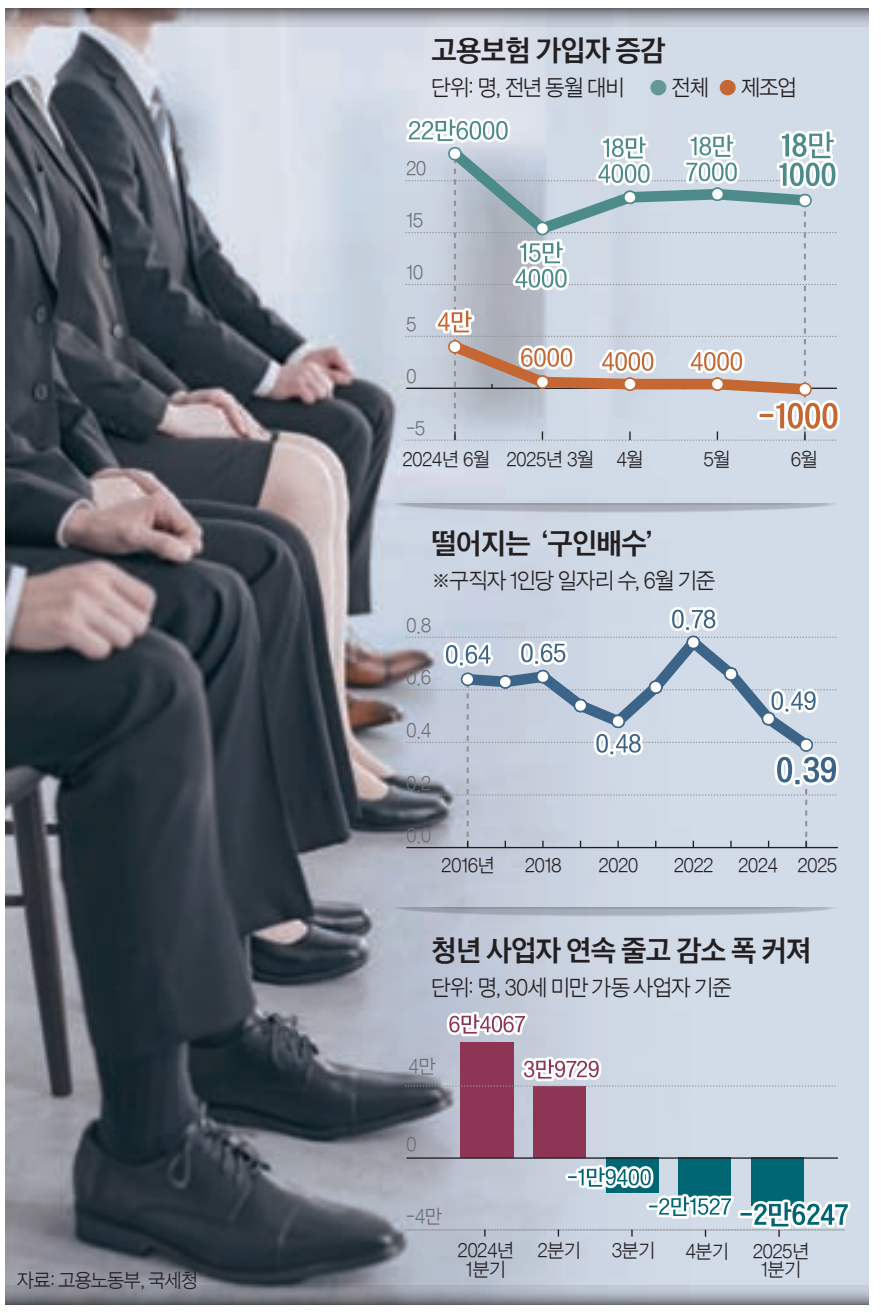
청년 가동 사업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1만9400명 감소하며 처음 방향을 틀었고, 4분기(-2만1527명)에 이어 세 분기 연속 줄었다. 소비 부진에, 이자 부담까지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전체 청년 사업자 감소분의 62%에 달한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에 5507명 줄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은 음식점·카페 같은 기술 기반이 없는 창업에 도전하는데 이들 업종 대부분은 포화 상태"라고 말했다.

취업도 여의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명 줄었다. 2022년 11월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세다. 5월 고용률 역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던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도 여전히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선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뚜렷한 대책은 담지 못했다.

세종=김민중·장원석 기자



이 대통령 "돈은 마귀지만,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5급 예비 사무관들을 만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이)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성남시장 때)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을 언급하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당부했다.

윤성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703-347-3788
수잔 김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윤과 당의 과오 각인하듯 새겨야… 이대로면 망하는 길"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여당과 정책대결 펼치도록 당 재건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달 골든타임
국민·당원 공감하는 혁신안 낼 것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인 정치적 토대를 만든 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선 논란 등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 낙수(落水)'가 끊이질 않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부각하지 못하고 증발시키고 있다"며 "한 치도 쇄신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다. 쇄신은 난제지만 권한이나 활동 기한은 제한적이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 내정 닷새 만인 지난 7일 사퇴하자 당내에선 혁신위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지난 9일 혁신위 방향타를 잡은 윤 위원장은 "당인(黨人)으로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 죽는 길이 너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뒤 5일간 내놓은 처방을 두고 당내에선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이를 막지 못한 당의 과오를 당헌·당규에 새기고, ▶대선 참패 ▶대선후보 교체 시도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 '8대 사건' 관련자들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뒤숭숭한 상황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손 놓고 죽는 길을 택할 순 없지 않나.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탄핵의 바다를 확실히 건너는 것이고, 둘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펼칠 수준의 정당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8월 전당대회까지의 한 달은 내게 당을 소생시킬 골든타임이다."

-적당한 선에서 상처를 덮자는 말도 있다.

"혁신위를 바라보는 당 주류의 시선을 재단하진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당헌·당규 개정은 관철하겠다.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과오를 돌에 각인하듯 새기는 건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과오를 사과하지 않는 방탄 정당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일부 의원은 '사과 좀 그만하자'고 한다.

"'계엄으로 인한 불편을 사과드린다'는 게 사과인가. 우리 당이 그 과정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는 게 사과다. 누군가 진솔한 사과를 한다면 그걸 시작으로 선순환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사과를 거부한다면.

"당원 소환제 대상을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특정 지역구 의원을 강제 불출마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제시했다.

"마치 봉숭아 학당 같은 계파 갈등의 통로가 된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중심의 집행부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현재 돌아가면서 맡는 식의 시·도당 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시·도당 대표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지역 조직이 중앙당 눈치만 보는 게 심각한 문제다. 17개 시·도당 대표를 당원이 직접 뽑으면 서울시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춘 서울시당 대표가 등장할 수도 있다."

-당심이 민심과 괴리됐다는 말도 있다.

"계엄 사태 후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됐지만 당을 오래 지켜온 당원들의 목소리가 혁신 과정에서 부각될 것이다."

-차기 지도부가 혁신안을 잘 따를까.

"지도부의 선의에 맡길 일은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공감을 얻어내는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다."

손국희·이창훈 기자

전공의도 돌아올 결심, 17개월 의정갈등 마침표 코앞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본격적인 출구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14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이 복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위원장은 "(전공의는)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 현장의 사법리스크 완화는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 요구 조건을 구체화한 셈이다. 그는 "그간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대전협 비대위원들이 공식적인 '다대다(多對多)'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생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걸어가는 의료진 모습.

앞서 12일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전공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학사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한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이제 다들 끝났다고 본다. 이 분위기라면 9월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2532명, 6월)는 의·정 갈등 이전(1만3531명)의 18.7%에 그친다.

대전협은 기존 '7대 요구안'을 대신할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일부 전공의는 입영 특례나 전문의 추가 시험 기회를 요구한다.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수련 마지막 연차인 전공의(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문의 취득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가 요구하는) 특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복귀율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사직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이미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했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채혜선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법안 마련, 연내 국회 통과 목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9월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 인구 360만 명의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이를 두 시·도에 전달했다. 특별법안은 7편(18절·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4~5편에 행정통합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글로벌 혁신거점 조성, 국가 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가 담겼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거대 도시를 조성,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대전=신진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 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ED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 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루기

'~에' 와 '~에게'

인공지능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챗봇은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막힘없이 답한다. 입력된 자료만 보여 주는 수준이 아니다. 시와 소설, 논문도 쓴다. 번역과 통역을 해 주고, 행사 일정도 짜 준다.

각종 매체엔 챗지피티 등과 관련한 소식이 넘쳐난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이다. 그런데 사물이고 물건이어서 챗지피티에 '출시'라는 말을 붙이지만, 돌·기계 같은 무정물을 대하듯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나 동물 등 유정물에 오는 조사 '에게'를 붙이고, '물었다'는 서술어를 사용한다. "챗지피티에게 물었다" "챗지피티가 답했다"는 문장이 흔히 오간다. 일상에선 '챗지피티한테'라고도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챗지피티를 인간처럼 대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에게' 대신 무정물에 오는 '에'를 붙였을 것이고, '물었다' 대신 '입력했다'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답했다'는 말은 챗지피티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컴퓨터가 답했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감각이 없는 무정물로, 챗지피티는 감정이나 의지가 있는 유정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격을 부여한 건 아니지만, 더 쓰이는 건 '챗지피티에게'다.

중앙 칼럼

단속 목표가 이민자 배제여선 안된다

김형재
사회부 차장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만 중요한 것 같다."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한 인사의 평이다. 그는 지난 6월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계속된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수비대(BP)가 남가주 곳곳에서 불법체류 주민을 잡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남가주 경제 상황 타격을 걱정했다.

그는 "중남미에서 건너온 불법체류 주민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고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들 덕분에 한인사회와 남가주 경제도 돌아간다"면서 "이런 그들을 다 잡아가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나. 트럼프가 중시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인종·다문화 민주주의 사회를 일궈온 미국의 힘을 믿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백인이 아닌 유권자 상당수도 '안전하고 위대한' 미국을 바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표를 줬다.

지난 2월 본지가 한인 1032명(시민권자 74%)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8%가 'ICE의 불법체류 주민 체포 및 추방 조치'에 찬성했다. 단, 단속대상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주민으로 한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행정부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신뢰해서다.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다. 하지만 최근 남가주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묻지마식 단속 작전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민당국은 도심 거리, 농장, 세차장, 병원, 학교, 공원 등 곳곳에서 대규모 체포작전을 단행했다. 현장 주민이 연방 요원들의 막무가내 단속 행태를 참다못해 반발하는 영상은 '인권'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이민당국이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공원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식 작전을 연출한 장면은 이민자 공동체 사회를 주눅이 들게 만들기 충분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추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주민 722명 가운데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정책이 공약과 다르다는 증거다. 궁색해진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행위 자체도 범죄"라고 합리화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 아메리칸드림을 꿈꿔온 이민자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묻지마식 불법체류자 단속작전은 지역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정책 적용대상을 이민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합법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민 권익단체가 우려한 '시작은 불법체류 단속, 최종 목표는 소수계 이민자 배제'라는 주장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체자 단속이 시작된 올초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백인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아침에

'촉'에 충실하고 직관을 믿어라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 유대인 격언이다.

제주에서 태어난 '당찬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는 국민적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꽃잎 같고, 여전히 꿈을 꾸는 당신에게' 라는 봄 포스터를 시작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나는 사랑이야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극중에서 애순이는 그 옛날 납치당할 뻔했었다. 다리 아픈 척하는 아줌마를 도와주려고 심부름을 했는데 실은 어린이들 납치해서 조직적으로 갈취하는 앵벌이들이다. 그날따라 애순이 엄마는 애순이를 찾으러 생전 가지 않는 곳을 뛰어다니며 납치당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애순이를 구해낸다. 엄마의 촉은 그렇게 애순이를 살렸다. 어머니의 촉은 하늘이 내린 사랑의 선물이다.

'촉'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고 -혹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바로 알아내는 직감이다. 직감은 현상을 직접 느끼는 감각적 판단을 의미한다.

직감은 논리적 추론이나 경험적 근거 없이 느끼는 본능적인 예감이다. 직감은 특정한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나 판단이다. 직감은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직감은 논리적 추론이나 경험적 근거 없이도 본능적으로 발생한다.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지금은 장군 체질이지만 어릴 적 장질부사에 걸려 6개월 사경을 헤맸다. 갖은 병치레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머니의 촉이 내 목숨을 구했다.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어머니의 촉은 귀신도 소름 돋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감지한다. 어머니의 촉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주술이 담겨 있다. 직감이나 촉이 '느낌'이나 '감각'에 가까운데 비해 직관(Intuition)은 경험과 배경, 지식이 은연중에 작용하여 나온 판단이나 통찰이다. 직관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지식이 쌓여 단단한 내공이 쌓였을 때 발휘된다.

촉이나 직감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직관력은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간의 직관력은 지능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없다. 미켈란젤로의 모든 대리석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있다. 조각가는 대리석에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할 뿐이다.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린다. 촉은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느낌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번개처럼 떠오른다. 촉이 발달한 사람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 못 하지만 플래그가 생성된 것처럼 쿡 찌르듯이 심장을 치고 달아난다.

본능적인 촉에 충실하고, 직관을 믿어라.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OO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LENNOX Carrier TRANE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8/02~08/15	13박 14일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390+항공
08/05~08/15	10박 11일	북유럽 4개국 $4390+항공
08/08~08/13	5박 6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2290(항공포함)
08/14~08/20	6박 7일	알래스카 일주 마감 $2990(항공포함)
08/21~08/31	10박 11일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마감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3박 4일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09/08~09/15	7박 8일	알래스카 크루즈 마감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09/09~09/19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9/16~09/26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3차 $2990+항공
09/24~10/04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2990+항공
09/30~10/13	13박 14일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9/30~10/06	6박 7일	정통 동유럽 $2790+항공
10/02~10/15	13박 14일	독일 일주 $5690+항공
10/05~10/13	8박 9일	크로아티아 발칸 $3590+항공
10/07~10/17	10박 11일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10/09~10/19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14~10/24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10/16~10/29	13박 14일	프랑스 일주 $5690+항공
10/17~10/26	9박 10일	지중해 크루즈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10/21~10/29	8박 9일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2290+항공
10/21~10/31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5차 $2990+항공
10/28~11/07	10박 11일	산티아고 순례길 $3590+항공
10/28~11/07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11/03~11/14	11박 12일	일본 크루즈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11/11~11/24	13박 14일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3980+항공
11/14~11/24	10박 11일	이스라엘&요르단 $2980+항공
11/21~12/02	11박 12일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6~11/30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3~12/28	5박 6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29	6박 7일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1/21~2/2/26	12박 13일	신비의 인도&네팔 $4590+항공
01/27~02/06	10박 11일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7800+항공
02/03~02/07	4박 5일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02/11~02/22	11박 12일	호주/뉴질랜드 $3790+항공
02/19~03/06	15박 16일	아프리카 두바이 $12500+항공
02/26~03/07	9박 10일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3/16~03/28	12박 13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490+항공
03/16~03/23	7박 8일	브라질/아르헨티나 $3190+항공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보는 최고의 일정
8/5~8/15 $4,390+항공 10박 11일

캐나다 록키
캘거리 IN/OUT 록키 완전 정복! 더이상 차만타는 여행은 NO!!
2차 8/08~8/13(여름방학 특선) $2,290 (항공포함) 5박 6일

정통 서유럽
4차 9/09~9/19
5차 10/9~10/19
$3,590+항공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이스탄불-카파도키아-콘야-파묵칼레
트로이-까발라-데살로니카-아테네
*산토리니 옵션
9/24~10/4 $2,990+항공 10박 11일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관광
유럽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
9/30~10/6 $2,790+항공 6박 7일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9/30~10/13 $4,590+항공 13박 14일

크로아티아 발칸
아픈 현대사를 안고도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10/5~10/13 $3,590+항공 8박 9일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 12일 $3,899+항공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27~2/6/26 10박 11일 $7,80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3/6/26 15박 16일 $12,500+항공

스페인 & 포르투갈
낭만과 정열이 넘치는
10/7~10/17 10박 11일 $3,390+항공

투우와 플라멩코 정열의 나라 스페인
세비야/론다/지브롤터/미하스/말라가
그라나다/똘레도/마드리드/세고비아
몬세라트/바르셀로나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매력을 지닌 포르투갈
리스본/신트라/까보다로까/파티마

특전 전 일정 4성급 이상의 럭셔리 호텔, 에그 타르트, 빠에야, 타파스, 하몽 등 전통음식
땅끝마을 까보다로까, 대륙의 경계 지브롤터 등 알찬 일정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원더풀 전문 에이전트

애난데일	센터빌	엘리컷시티
미세스신, 케이티김	엘렌리, 켈리서	홍수향, 해나문

레나고 윤태웅 그레이스조 세라강

ROYAL CARIBBEAN 크루즈
인생 버킷리스트

- 아이슬란드&그린란드 마감 8/21~8/31 | 10박 11일 | $2990(+항공/오션뷰)
- 일본 크루즈 11/3~11/14 | 11박 12일 |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 도쿄, 나고야, 오사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 지중해 10/17~10/26 | 9박 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 Allure of the seas 23만톤급/바르셀로나 시내관광 포함
- 바하마 2/7/26~2/15/26 |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 뉴저지 출발 왕복 라이드 포함

VIKING RIVER CRUISES 바이킹 크루즈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탑여행사 크루즈 전문 가이드가 직접 모시고 갑니다.
레크레이션 전문 가이드 동행하여 배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운영합니다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 9/27~9/30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또는 일본 연합 투어
-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일 출발)
-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화 출발)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화 출발)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단풍특선) 11/01~11/06, 11/08~11/13

* 2인 이상 출발보장

단풍특선 4차 10/14~10/24 + 동경
3박 4일 | 10/25~10/28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크루즈
11박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발코니 요금문의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6차 10/28~11/07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1/8~11/13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 강릉/속초/김포/제주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6박 7일 일출발 내륙 한 $1499+항공 / 영 $1699+항공	4박 5일 화출발 동해안 한 $989+항공 / 영 $1119+항공	6박 7일 일출발 제주+동해 한 $1549+항공 / 영 $1879+항공
3박 4일 일출발 서남권 한 $829+항공 / 영 $929+항공	2박 3일 일출발 제주도 한 549+항공 / 영 $749+항공	9박10일 일출발 전국일주 한 $2199+항공 / 영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3박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3박5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다낭 $450+항공	3박5일 싱가폴 $850+항공

소규모 맞춤여행 탑여행사는 소규모의 단체여행을 모국, 유럽 등 전세계를 요구하시는 대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친한 그룹끼리 골프 또는 여행을, 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손자·손녀들만의 3세대 투어를 전문적으로 맞춤 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미국국적) 20% off 남 $720/여 $770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뉴욕/나이아가라
월 무조건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7월 14일, 28일 대형버스 확정 2박 3일 $650

동부투어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백/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월 무조건 출발 5박 6일 $1350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월 무조건 출발 3박 4일 $899

성극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199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일,월 출발

-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출발
-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매주 월 출발
-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출발
-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매주 월,금 출발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출발
-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7/4, 8/29)
-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 코스타리카 연합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항공 / 매주 월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숭고한 헌신과 신중한 계획이 필수

전문의가 되는 12개 단계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전문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10대 말부터 시작한 일정은 30대 초에 끝나곤 한다. 인생 초반 잠깐 지나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기나긴 시간이다. 자신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주위에서 강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본다.

미국에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다. 그래서 의대에서는 '열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AI 생성]

미국에서 특히 의사가 되려면 엄청난 인내심, 개인적인 희생, 수 년의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꼼꼼한 계획이 필수다.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매번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 진학 컨설턴트인 남경윤씨는 사다리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의대에 지원할 때까지 훌륭한 개인적 이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왜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깨닫지 못했다"면 "지원서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개인 에세이를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첫째, 적성 맞는지 확인: 대학에서 도전이 필요한 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학부 시절에는 병원 임상 실습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이를 위해서 의사들과 인터뷰가 필요하다. 수업 수강과 입학, 면허 시험 준비 등 어려운 학업에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의대와 레지던트 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대 진학 준비 과정 요구 사항 완료: 의과대학원에는 많은 필수 수강 조건이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학부의 의예과 지도교수와 상담할 것을 조언한다.

적성맞는지 확인하는게 첫 단추
과외활동 통해 '열정' 입증 필요
레지던트 1년차에 국가시험 완료

한 교육전문가는 의대 입학 요건(MSAR)을 검토하여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MSAR(Medical School Admission Requirements)에는 각 의대의 입학 요건(필수 및 추천 과목), 평균 GPA및 MCAT점수, 합격률, 인터뷰 초대율, 지원자수, 학비 및 재정지원 정보, 학교의 미션 및 교육 철학, 특정 프로그램 정보 등이 있어서 희망 의대 리스트 등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의미 있는 과외 활동 참여: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과 과외 활동을 선택하고 의대 입학팀에 의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재다능한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 자원봉사나 의사를 따라다니는 등 의료 관련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대에 진학하기 전에 갭이어를 갖는 것도 임상 또는 연구 경험을 쌓고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활동이 의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입학 사정관은 바로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이므로 매 단계마다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MCAT 및 기타 필수 시험 공부: 의대 입학 시험(MCAT)은 의대 입학의 핵심 요소이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학생은 4~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학부 3학년 말에 MCAT를 치른다. 전문가들은 연습 시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목표 학교의 중간 MCAT 점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대에서는 의대 지원자에게 윤리적 판단력, 대인관계 능력, 전문성,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상황 판단 시험(situational judegement test)을 요구할 수 있다. 몇몇 의대는 필수로, 일부는 선택으로 인터뷰 점수에 반영한다. 하나는 Casper시험, 시나리오 기반으로 영상이나 글을 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서술형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90~110분 소요되며 응시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평가한다. 다른 것으로는 AAMC PREview 로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50개 이상의 의대에서 요구한다.

» 2면 '전문의가 되는 12개 단계'로 계속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켄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한국 대학 갈거예요" 외국인 열공

한남대, 외국인 대상 한국어 연수
자격증 따면 수능 없이 입학 가능

지난 3일 오후 대전 한남대 한국어교육원 강의실. 20여 명의 학생이 '은/는, 이/가, 을/를' 등 한국어 조사를 배우고 있었다. 지난달 9일 개강한 '2025학년도 여름학기 한국어 연수'에 참가한 외국인 연수생들이다. 바깥 온도가 섭씨 32도였던 이날, 강의실은 학업 열기로 더 뜨거웠다.

"더워요" "더웠어요" "더웠지만" 등 '덥다'의 활용형을 따라 읽은 연수생들은 지급받은 태블릿PC에 단어를 써보고 문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어는 쓰기도 어렵지만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존칭과 조사가 다양해 문장 만들 때 많이 틀린다고 했다.

한남대 한국어 연수에 참가한 외국 학생들이 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남대]

한남대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비우는 여름·겨울방학을 포함, 1년에 4차례 강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이번 여름학기 처음 등록한 128명을 비롯해 총 1086명의 연수생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학부·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학생이 총 2090명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다.

연수생들은 각국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배운 뒤, 현지 한국대사관 면접을 통과해야 한국행 비자(D4·6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와서 말하기·듣기·쓰기 등을 배우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최고 6급) 자격을 취득하면,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내 대학 입학도 가능하다.

이날 만난 베트남 연수생 3명은 모두 국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수도 하노이 인근 도시에서 왔다는 훼(20·여)은 IT(정보기술)나 미디어영상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게 꿈이다. 한국 생활 1년여 만에 지금은 순두부찌개를 직접 해 먹을 정도로 한국문화에 익숙해졌다.

하롱베이가 고향인 민안(24·여)은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열성 팬이다. "한국 문화가 좋아서 왔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 240명 인천서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재외동포청 47개국 교사 초청
AI 활용법 등 프로그램 시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 세계 47개국에서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 240명을 초청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고국 초청 연수로, 올해로 28회째를 맞는다. 전 세계 116개국에서 1464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4500명의 교사가 활동 중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연수는 실습 중심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 개요와 이론을 학습했으며,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수법, 말하기·쓰기 워크숍, 놀이 및 그림책 활용 수업법, 학교 운영 전략 공유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받는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다양한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접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교육 내용도 눈에 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수업에서의 AI 도구 활용'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데 이어,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청년 810명, 한국 역사 배운다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개막
미주 포함…세 차례 진행

해외의 차세대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모국을 만끽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8일(한국시간) 서울에서 '2025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 연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하며,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재외동포 청년 810명이 총 3차례에 걸쳐 일주일간 일정으로 참가한다. 1차 연수는 8일부터 14일까지, 2차는 22일부터 28일까지, 3차는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 교육이 대폭 강화됐다. 인기 역사 강사 최태성이 '광복 80주년, 차세대 동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연수생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수 중 방문할 역사 유적지에 대한 선행 학습도 한다. 또한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국제평화 가치도 체험한다.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5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 연수' 개막식에서 최태성 역사 강사가 '광복80주년 차세대동포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올해 연수는 처음 참가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반'과 재참가자를 위한 '심화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심화반 참가자들에게는 보다 심화한 모국 체험 행사가 제공된다.

연수에는 진로 탐색 콘서트도 포함돼 모국에 정착한 재외동포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와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재외동포 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립인천대 학생들과의 토론회 및 네트워킹 활동도 진행된다. 연수는 수도권(인천, 서울), 부산, 전북(전주·무주·임실·익산), 충남(부여·공주·대전) 등에서 6박 7일 일정으로 펼쳐지며, 부산대, 전주대 등 국내 청년들과의 또래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면 '전문의가 되는 12개 단계'에서 계속

다섯째, 의대 지원서 작성: 의대 합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의대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인성과 공감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의학에 헌신하게 된 경험을 보여 주는 설득력 있는 개인 에세이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의대에서 요구하는 추가 지원 에세이 작성과 추천서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 웹사이트에 의대생이 갖춰야 할 필수적 특성이나 바람직한 특성 목록이 있다. 개인 에세이를 작성할 때 이를 참고하면 좋다.

여섯째, 의대 면접 준비: 대부분 의대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면접 선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적합한 복장을 갖추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취업 면접처럼 준비해야 한다. 형식은 다양하다. 학교마다 일대일 면접,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면접, 여러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집단 면접 등이 있다.

일곱째, 합격 후 자신에게 맞는 학교 선택: 학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MD(의학박사)와 DO(정골의학박사)다. MD수여 의대는 대증요법 의과대학(allopathic medical schools)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의학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반면, DO수여 의대는 정골의학 의과대학(osteopathic medical schools)이라고 하며, 사람 중심의 치료(hollistic) 기법에 중점을 둔다.

여덟째, USMLE 또는 COMLEX-USA의 처음 두 섹션 통과: 미국 의대의 대증요법 및 정골요법 의대생은 일반적으로 의대 재학 중에 국가 면허시험의 3영역 중 2영역을 치른다. 3번째 영역은 레지던트 기간 동안 치른다. MD 학생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을 치르고, DO 학생은 미국 종합 정골의학 의사면허시험(COMLEX-USA)을 본다. DO 학생은 두 시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아홉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매칭: 대부분 의대 4학년은 전국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NRMP)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한다. 전문가들은 의사 면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록 원하는 레지던트 자격을 얻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열번째, 의대 졸업: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의대를 졸업하면 공식적으로 의사가 된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 시험 3차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열한번째, 레지던트 과정 시작 및 일반 의료 면허 취득: 레지던트 기간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년에서 7년 사이다. 레지던트 1년 차에는 USMLE 또는 COMLEX-USA의 마지막 과목을 치르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얻는다. 종양학, 심장학 등 특정 분야에서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은 임상 또는 연구 펠로우십을 선택할 수 있다.

열두번째, 의료 전문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 취득: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주요 인증 기관은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로, 2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40개 전문 분야와 89개 세부 전문 분야에서 100만 명의 현역 의사를 인증한다. 미국 정골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는 27개 전문 분야와 48개 세부 전문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을 제공한다.

장병희 객원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전문의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빵빵)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관객 기침도 용납 않는 완벽주의자, 조성진을 편애하다

1 지난달 22년만에 예술의전당에서 에사페카 살로넨 지휘로 30여년 만에 뉴욕필과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2 2016년 일본기획사 재팬아츠 신년회에서 지메르만과 조성진.

지난해 마우리치오 폴리니, 올해 알프레드 브렌델이 세상을 떠났고,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와 다니엘 바렌보임마저 공식 무대에서 물러난 지금, 피아노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릴 인물은 두 사람뿐이다. 1965년 쇼팽 콩쿠르를 제패한 마르타 아르헤리치(1941년생), 그리고 1975년 같은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쥔 폴란드 출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56년생)이다. 올 상반기 한국 클래식 시장의 피날레를 장식한 게 지메르만이다. 지난달 말 뉴욕 필하모닉 협연은 그가 21세기 들어 '수퍼스타'로 군림하는 배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데뷔 때부터 미디어 노출 극도로 꺼려

지메르만의 예술은 철저한 통제에 기반한다. 청중·악기·공간·매체까지 외부 요소를 자신의 기준 아래 두려는 집념은 예술적 선택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깝다. 사소한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는 사회적 통념으론 '기행'이지만 지메르만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번 내한에서도 공연 전 과정을 촬영 금지로 제한했고, 주최 측은 스마트폰 진동음에도 예민했다. 해외에서 객석 소음, 녹음, 녹화로 연주를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독일 루르 페스티벌에선 수차례 경고에도 스마트폰 촬영을 멈추지 않는 관객을 보고는 공연 도중 무대를 나갔다. 2010년 런던 공연에서 녹음 장치를 쓰는 관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003년 예술의전당 독주회에서는 천장의 음향 장비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직접 제거를 시도했다.

피아노 역시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공연장 비치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조율한 전용 피아노를 공수해 건반과 액션 메커니즘까지 분리·재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폴란드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려서 만난 대부분의 피아노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자신이 조금 손 보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악기가 되는 희열을 경험했던 게 피아노를 직접 설치하는 이유다. 그는 저-중-고음역으로 나눠 대략 1시간 안에 조립을 완성한다.

지메르만에게는 피아노 조립이 일상적인 절차지만, 주최 측에는 물류비용부터 상당한 부담이다. 스위스에서 유럽 각지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이동할 때마다 피아노 운반을 위한 통관 허가서를 일일이 준비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지메르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절차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JFK 공항 세관은 지메르만이 가져온 피아노 틀에 붙은 접착제를 위험물로 간주해 피아노를 파기했다. 지메르만은 새 피아노를 미국으로 반입하려 했지만 세관은 다시 피아노를 압수했고 그를 닷새간 억류했다.

평소 사생활을 철저히 가리는 성향이지만, 유독 일본에서는 경계심을 낮췄다. 1978년 첫 일본 공연 이후 현지 에이전시 재팬아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2003년부터는 도쿄에 거처를 마련하고 스위스 바젤 자택을 오가며 생활했다. 1981년 폴란드의 계엄령 선포 이후 조국을 떠나 1984년부터 스위스에 정착했으며, 현재는 폴란드와 스위스 국적을 이중보유하고 있다. 2015년 조성진의 도쿄 리사이틀에 깜짝 방문해 무대 뒤에서 격려했고, 2022년 일본 예술원 세계문화상 시상식에는 부인과 딸과 함께 참석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음악지에는 도쿄 지방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힐 정도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서 롯폰기를 즐긴다는 그가 서울도 사랑할까.

한국과 인연은 1989년 정경화와 함께 한 슈트라우스·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녹음으로 시작됐다. 최근에는 마스트미디어와 협력하며 꾸준히 내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관타나모 수용소 인권 문제를 규탄한 지메르만은 2009년

2

'피아노의 기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소음 등 이유로 수차례 연주 중단
공연 전용 피아노도 가지고 다녀

정경화 음반 녹음으로 한국과 인연
"조성진, 논란 없는 콩쿠르 우승자"

쇼팽 콩쿠르 우승 후 음악세계 구축
협업보다 고립된 음악 추구 단점도

폴란드 내 미국 미사일 배치에 항의해 미국 공연을 전면 중단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영국 매니지먼트 해리슨패럿과도 2021년 결별하면서 미주·유럽 무대에 공백이 생겼다. 마스트미디어는 이 틈을 공략해 2010년대 중반부터 내한을 연속적으로 성사시켰다. 국내 모 치킨 브랜드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팬데믹 기간에도 자가격리를 감수하며 방한해 치킨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데뷔 당시부터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고 공연이나 음반 홍보 자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뉴욕 필하모닉 협연에서도 '수하물 파손'을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다. BBC 라디오 진행자 톰 서비스가 2010년 바젤 자택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단독 인터뷰 이후, 그라모폰상 등 주요 음악상 수상 계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일본 저널리스트와의 접촉을 제외하면 미디어와의 대면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국내 언론과는 2017년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발매한 슈베르트 소나타 음반과 관련한 서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아직 공식적인 만남이 알려진 바는 없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쇼팽 콩쿠르 역사에서 논란 없는 첫 우승자는 조성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성진 "지메르만, 아버지처럼 조언해줘"

지메르만은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등 당대 거장들과 무대를 나누며 스스로 구축한 독립적 생태계로 들어갔다.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는 설계자로 위치했다. 공연 당일 오전까지 독주회 곡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초기엔 관행을 거스른 일탈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지메르만의 파격은 상식을 뛰어 넘는다. 유럽의 외진 시골 마을에선 이름을 속이고 연주하기도 했다. 새롭게 연구하는 곡을 청중 앞에 시험삼아 연주해보기도 하고, 어떨 땐 약속된 곡의 절반만 연주했다.

일흔을 앞둔 지금도 지메르만의 행보는 예측 불가다. 특히 디지털 녹음에 대한 불신은 평소 그의 예술관에서 드러나는 집요한 정밀성과 묘하게 어긋난다. BBC 인터뷰에서 그는 "디지털은 소리를 지나치게 정확히 포착해 음악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공연에선 관객의 기침조차 용납하지 않는 극도의 정숙을 요구한다. 음악은 주로 자동차 안에서 듣는다면서 "도로 소음이 디지털 음원의 세부를 덮어주면 오히려 흐름이 또렷이 들린다"고 설명하는데, 음 하나까지 치밀하게 조율하는 그의 미학과는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다.

2024년 그라모폰 신년 인터뷰에서 지메르만은 "앞으로의 계획은 나도 잘 모르겠다"며 슬쩍 은퇴 가능성을 비쳤다. 브렌델이 만 77세에 공식 무대에서 은퇴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그는 콩쿠르 심사 제안을 좀처럼 수락하지 않았다. 참가자가 '콘서트를 즐기는 일'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음대에 소속된 적도 없고, 공개 마스터클래스도 열지 않아 직계 제자라 부를 인물도 없다. 조성진이 지메르만과 대면한 뒤 "계약과 콘서트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버지처럼 조언해준다"고 말했는데, 몹시 특별한 경우였다.

지메르만은 폴란드 정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개적 항의는 비교적 조심스러워 하는 편이다. 전통적 의미의 '거장 피아니스트'들이 하나둘 사라진 지금, 농담과 철학적 사유를 오가는 기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티튜트튜트

사립 10만불 학비 시대 도래
사전 설계로 실비 절감 가능

미국의 유명 백화점 JC페니컴퍼니(J.C. Penney Company)의 설립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는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았지만, 대공황을 겪으며 거의 파산에 이르는 등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항상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잠언이 있다. 이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말이자, 시작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 원동력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국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의 원리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진리는 시작과 함께, 현실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때만 가능하다. 특히, 복잡한 제도와 기준이 얽힌 미국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알고 시작하는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재정보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의 대학 진학 전략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연간 수만 달러가 좌우되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설계와 진행에 대해 과연 어떤 준비를 시작했을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자녀의 대입 준비와 재정보조 설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여름방학 시기에는 이를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마다 매년 상승하는 총학비는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총학비가 1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이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에 관심을 갖고, 현 시점에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어떻게 진단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수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즉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준비가 잘 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도 저렴하게 다닐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선택 폭도 넓어지고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더욱이 자녀가 둘 이상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러한 재정부담은 심화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전 설계를 했느냐가 자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단순히 FAFSA나 CSS 프로파일을 작성해 제출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제출한 정보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와 사전 준비 없이는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더구나 재정보조 시스템은 각 대학마다 평가 기준과 반영 항목이 다르고,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구조, 형제자매 수, 부모의 나이 등 수십 가지 항목이 재정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절대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재정보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설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열쇠다.

최근 한 학부모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해당 가정의 자녀는 올해 총학비가 9만9000달러인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이 가정은 비교적 소득과 자산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5만6000달러의 재정보조만 받았다. 그러나 사전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조정만 했더라면 8만5000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학부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한 해는 어쩔 수 없다며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고정관념이 이 가정에 3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이는 세금 공제 후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약 3만7500달러의 수입을 벌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큰 부담이었다. 이런 경험은 단지 한 가정의 사례가 아니라, 매년 수천 가정에서 되풀이되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자녀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에듀 포스팅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대학 지원서
커몬앱서 징계 삭제· 재정지원 갱신

커몬앱(이하 Common App)이란 자녀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원서 작성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공동지원서를 통하여 대학을 지원한다.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대학이 이 플랫폼을 통하여 하나의 지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학생이 대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 원서 작성 플랫폼이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Common App은 대학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학년도 지원서부터 시각적인 디자인 개선과 절차 간소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다.

Common App은 공식적으로 8월 1일부터 사용하지만, 지금부터 개정을 만들어 각 섹션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익숙해지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바뀐 내용도 확인해 보면 좋겠다.

▶2025년 Common App의 주요 변경 사항

1.징계 내역 질문 삭제

기존에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내용을 기입해야 했지만 2025년 바뀐 원서에는 더 이상 징계 기록을 묻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삭제된 항목이다.

2.성 정체성과 이름 선택의 다양화

성 정체성 항목이 더 포괄적이고 세분되었으며 선호하는 이름, 대명사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이 지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다.

3.수수료 면제 절차 간소화

이제는 학교 카운슬러의 서명 없이도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게 바뀌었다. 무료/할인 급식 또는 기타 지원 자격이 있다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4.신규 대학 20개 추가

2025년부터 새로운 20개 대학이 공동지원서에 가입이 되었다. 여러 공립대학교가 포함되었으며 처음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도 포함되었다. 또한 그동안 커먼 앱을 사용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조지타운 대학도 2026년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지원을 커먼 앱에 포함이 될 예정이라 자체 지원서를 사용했던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새로이 커먼 앱에 가입이 되었을 수 있으니 대학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5.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원서 작성 및 편집이 가능해졌다. 이동 중에도 편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함을 추가하였고 시간도 절약하여 학생들의 지원서에 편리성과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6.'추가 정보' 섹션 글자 수 제한 축소

신입생 지원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 질문의 글자 수가 기존의 최대 650단어에서 최대 300단어로 글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7.추천서 및 서류 관리 절차 개선

학교 카운슬러와 추천서를 담당한 추천인이 학생을 대신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행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추천서를 작성하는 추천인이 서류를 올리고 추적하는 방식도 간소화되어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8.재정 지원 섹션 업데이트

학생이나 가족 상황이나 가정의 특수한 재정 상황인 경우,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재정 지원 섹션이 업데이트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직업에서의 해고, 의료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특정 필드를 추가하기도 했다.

9.대시보드 이름 변경 및 위치 개선

학생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대시보드가 이제는 나의 공동 지원서(My Common Application)로 변경되어 메인 메뉴 상단에 배치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10. 도전 과제 및 상황

기존의 "지역사회 혼란" 질문을 대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도전과 경험을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이 확장되었다. 공동지원서가 간소화되어 편리해진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력과 전략적인 구성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각 섹션을 미리 연습해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대학 지원서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JGL Construction Inc.
RESIDENTIAL & COMMERCIAL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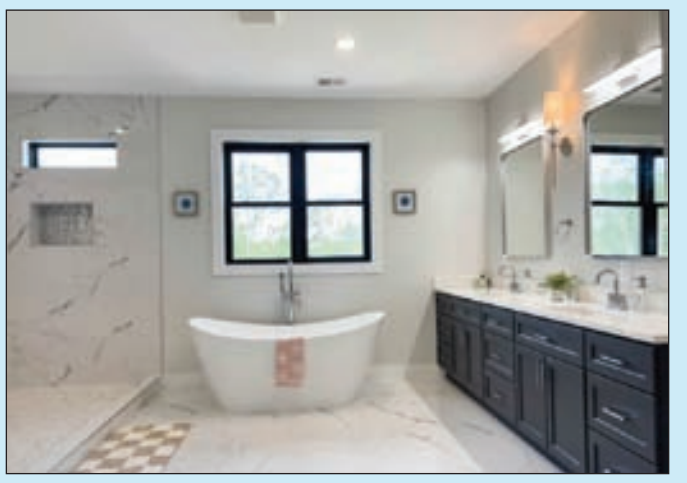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콜드’ 파머의 차가운 왼발, PSG 마저 얼렸다

첼시, 클럽 월드컵 결승서 3-0 완승
우승 상금 등 최대 1786억원 챙겨
2골 1도움 올린 파머, 골든볼 수상
출전 불발 이강인, 이적 가능성 커져

첼시의 콜 파머가 FIFA 클럽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뒤) 미국 대통령은 시상대를 떠나지 않고 정중앙에 계속 서 있었다. 눈치 없는 행동에 첼시 선수들은 당황했지만 그대로 우승 세리머니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첼시(잉글랜드)가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을 꺾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다.

첼시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서 PSG를 3-0으로 완파했다. 4년 만의 정상 탈환이자, 32개 팀으로 확대된 대회에서의 첫 우승이다.

첼시는 우승 상금 4000만 달러(551억원)와 출전수당 등을 합해 최대 1786억원까지 챙긴다. 경기 전 수퍼컴퓨터의 예상 우승 확률은 PSG 64.4%, 첼시 35.6%였다. 첼시는 열세를 딛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시즌 5관왕을 노린 PSG의 질주를 멈춰 세웠다.

첼시의 콜 파머(23·잉글랜드)가 2골·1도움으로 3골 모두에 관여했다. 파머는 전반 22분 정교한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8분 뒤 선제골을 리플레이한 듯 추가골을 터트렸다. 섭씨 32도가 넘는 무더위였지만, 냉철했던 파머는 양손으로 몸을 비비는 ‘콜드 세리머니’를 펼쳤다.

파머는 전반 42분에 침투 패스로 주앙 페드루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8만 1118명 관중은 첼시의 골잔치에 더위를 잊었다.

대회 3골·2도움으로 골든볼(최우수 선수)을 수상한 파머는 “경기 전 모두가 우리(의 우승)를 의심했기 때문에 더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파머는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유럽 클럽대항전 중 3부리그 격) 결승전에서 레알 베티스(스페인)를 상대로 2도움을 올려 4-1 대승을 이끌기도 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엔초 마레스카 첼시 감독은 “경기 초반 10분에 승부를 걸었다”고 말했다. 킥오프 직후 맨투맨 수비로 PSG를 압박했다. 라이트백 리스 제임스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했고, 파머를 공격형 미드필더 대신 오른쪽 윙어로 세워 공격 때 공간을 넓혔다. 볼 점유율에선 밀렸지만, 역습을 노렸다.

첼시는 2022년 토드 보엘리(미국) 구단주 부임 후 3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 48명을 영입했다. 그중 일부와는 7~9년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 첼시는 이번 대회 최연소 팀으로, 전원 26세 이하다. 디애슬레틱은 “(첼시는 선수단에) 챔피언스리그 수준 보너스를 약속했고, 미국 내 최적의 훈련장 확보를 위해 FIFA 지원금의 2배를 썼다”고 우승 배경을 분석했다.

PSG는 경기에서도 매너에서도 완패했다. 후반 40분 주앙 네베스(PSG)은 마크 쿠쿠렐라(첼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퇴장당했다. 경기 후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첼시 페드루의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말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이 거세다. PSG 이강인(24)은 결승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팀을 떠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린 기자

한달만에 또 만난 1위와 2위, 윔블던 승자는 신네르

신네르, 알카라스 꺾고 윔블던 우승
프랑스오픈 결승전 패배 설욕 성공
BBC “페더러-나달 이을 새 라이벌”

“페더러-나달을 이을 새 라이벌이 탄생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4일(한국시간) 얀니크 신네르(24·세계 1위·이탈리아)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윔블던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22·2위·스페인)를 꺾고 남자 단식 정상에 오르자 이렇게 표현했다. 신네르는 이날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알카라스에 3-1(4-6, 6-4, 6-4, 6-4)로 역전 우승했다.

신네르의 윔블던 첫 우승이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23년의 4강이었다. 그는 윔블던에서 우승한 첫 이탈리아 선수로도 기록됐다. 2024년 호주오픈과 US오픈, 그리고 올해 호주오픈 등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드코트 대회에서만 우승했던 신네르는 윔블던을 접수하며 우승 목록에 잔디코트를 추가했다. 클레이코트 대회인 프랑스오픈만 추가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4대 메이저대회 모두 우승)이다.

신네르는 지난달 프랑스오픈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당한 2-3 역전패도 설욕했다. 동시에 알카라스를 상대로 최근 연패 사슬(5연패)도 끊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의 8승5패 우위다. 신네르는 “프랑스오픈 패배를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게 우승 비결”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윔블던 우승을 이뤄 기쁘다. 내겐 의미가 큰 우승 트로피”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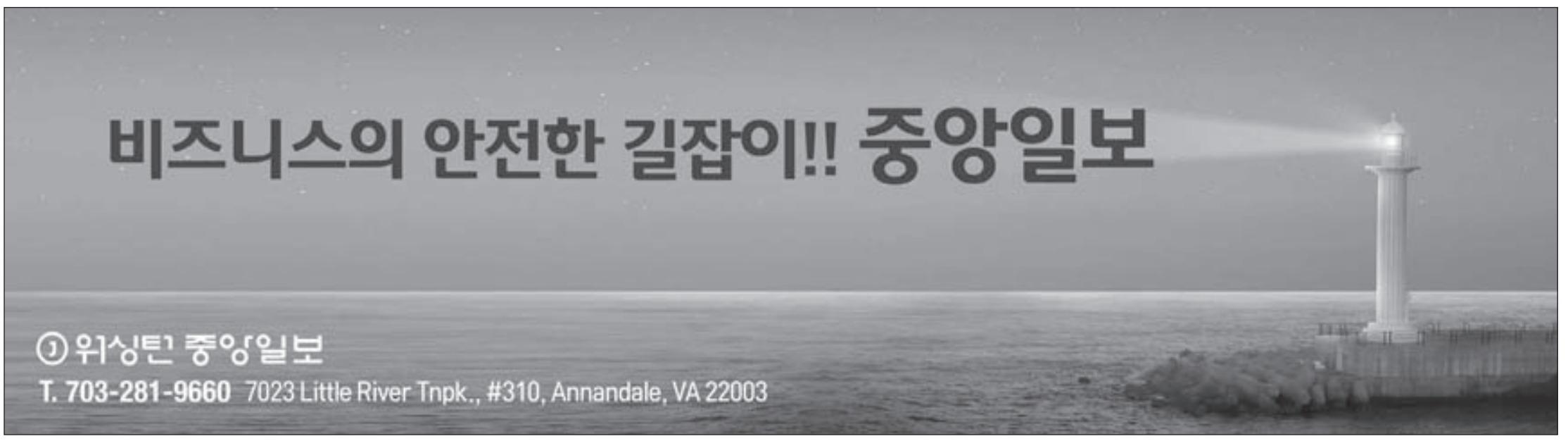
카를로스 알카라스(오른쪽)를 꺾은 얀니크 신네르(왼쪽)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에 실패했다. 윔블던에서의 연승 행진도 24번째 경기에서 멈췄다. 알카라스의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전 무패행진도 이번에 가로막혔다. 그는 올해 프랑스오픈까지 메이저대회 결승에 5차례 올라 모두 우승했다. 알카라스는 커리어 그랜드슬램까지 호주오픈만 남겨뒀다.

BBC도 두 선수를 두고 “로저 페더러(44·스위스)와 라파엘 나달(39·스페인)을 떠올리게 하는 라이벌의 탄생”이라고 전했다. 페더러는 메이저 20승, 나달은 22승의 레전드로, 선수 시절 메이저대회 결승에서 수없이 만나 명승부를 연출했다. 세계 남자 테니스는 이제 신네르-알카라스의 새로운 ‘빅2’ 시대를 맞았다. 두 선수는 지난해부터 메이저 우승을 양분했다. 신네르가 네 차례, 알카라스가 세 차례 우승했다.

피주영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이구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New Hampshire Ave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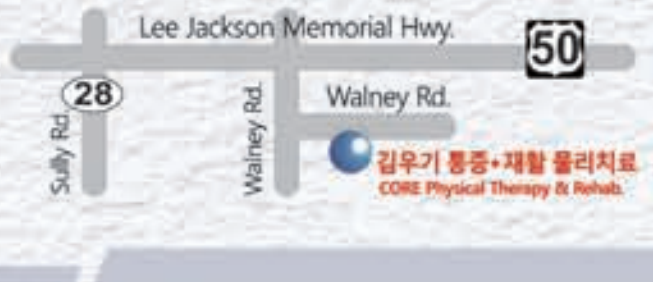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7월 구인광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매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급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 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토요일 가능한 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 Upper Marlboro MD
베네핏 :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권 :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옆 타운홈 지하 방하나 옷장, 매트리스, 저녁 식사 제공, 유포 $500
443-522 -7777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 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 하나 (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여성분
240-413-2738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ssistant Pastor (Youth Group): Preside and preach at Sunday worship services for youth group; Teach and train youths for knowledge of God in Bible classes and small groups in a Biblical way;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youth group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 Employer & Job Place: Seoul Presbyterian Church at 6428 Ox Road, Fairfax Station, VA 22039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무직 Processing Dept.
-서류 및 데이터처리
-기본 문서작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지원 업무
-책임감있고 성실한 분 환영
풀타임/사무직 경력자 우대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 Chantilly, VA 20151
시간 :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유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젼트 라이센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 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 3.5, 집 전체 나무 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 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패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 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있는 뒷마당, 남향, 밝은집,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 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개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실,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화장실, 새나무마루, 새페인트, 새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근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간단한 취사, 7월8일부터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패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 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 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패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패어팩스 코스코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센터빌 싱글홈 $915,000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5,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레이션 룸
▶703-813-8949

Stafford 싱글하우스 $69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 아웃, 넓은 덱,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덱,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왁싱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밤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AWARDED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져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썸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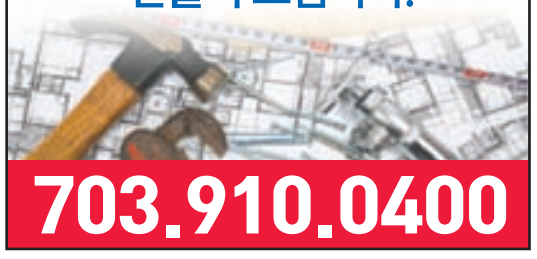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e) is not up to it ; 하기 싫다

(It's Saturday morning and Hope is talking to her husband Laurence…)

(토요일 아침에 호프가 남편 로렌스와 이야기를 나눈다…)

Hope: I'm going to the mall. Do you want to come with me?
호프: 샤핑몰에 갈 건데 같이 갈까?
Laurence: No. I'm not up to it.
로렌스: 아니. 안 가고 싶어.
Hope: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호프: 오늘 뭐 할 건데?
Laurence: I'm just going to lay back and rest.
로렌스: 그냥 마음 편히 쉴래.
Hope: You've had a long week.
호프: 당신 이번 주에 바빴어.
Laurence: Tell me about it.
로렌스: 누가 아니래.
Hope: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호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Laurence: Let's barbecue.
로렌스: 바비큐하자.
Hope: Good idea. 호프: 그거 좋네.
Laurence: We'll have some steaks.
로렌스: 스테이크 좀 먹자고.

기억할만한 표현

▶*lay back: 긴장을 풀다. 마음 편하게 쉬다.
"I just want to lay bac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엔 그냥 마음 편히 쉬고 싶어.)

*(one) has a long week (or day): 바쁜 한 주(혹은 하루)를 보내다.
"I'm glad it's Friday. I had a long week." (금요일이 되니 신난다. 참 바쁜 한 주였어.)

*tell me about it: 내 말이 그말이야. 누가 아니래.
Jim: "Wow! Is it hot today!" (짐: 와! 오늘 덥네!)
Roger: "Tell me about it." (라저: 그러게 말이야.)

낱말퀴즈

1	2		3	■	4	5		6
7		■		■	8		■	
	■	9		10		■	11	
12			■		■	13		
■	■	14		■	15		■	■
16	17		■	18	■	19		20
21		■	22		23		■	
	■	24		■		■	25	
26				■	27			

가로열쇠

(1)아직 어른이 되지 아니한 사람 (4)분에 넘치는 듯싶어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7)물가나 물 밑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8)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나아감 (9)바닥이 패어 물이 빙빙 돌며 흘러 나가는 것 (11)임금에게 올리는 밥 (12)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13)사춘기에 성대에 변화가 일어나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 (14)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다 (15)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 (16)명예롭지 못함. 평생 씻지 못할 ~ (19)사람이 살지 않는 섬 (21)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22)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24)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음 (25)날이 한쪽에만 서 있는 짧은 칼 (26)논이 산골짜기 같은 데에 있어서 물길이 닿지 않아 비가 오지 않으면 천둥이 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둥□□ (27)소의 안심에 붙은 고기. 제비가 날개를 편 것 같이 날씬하고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비□□

세로열쇠

(1)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 □□여□ (2)정성으로 내는 돈 (3)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4)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덤비는 사람. 한곳으로 감돌아드는 물에 비유하여 생긴 말이죠 (5)땅이 흔들리는 현상 (6)물에 빠진 사람은 이것이라도 잡죠 (9)능력이 우수하고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설 힘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 (10)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11)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13)변명할 길이 없음 (16)하늘을 함께 이지 못함.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짐. ~의 원수. □□대□ (17)이름난 기생. 황진이는 노래와 춤, 서화로 이름이 난 당대의 ~였다 (18)묵은 한 해를 보냄. ~음악회 (20)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아기는 엄마가 하는 대로 짝짜꿍이나 ~ 같은 것을 따라 하였다 (22)멥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쪄 낸 떡. 어린아이의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23)병적으로 높아진 체온을 정상으로 내리게 하는 약 (24)밥의 높임말 (25)옷자락을 여밀 때 구멍에 끼우죠

스도쿠

			8			4		1
	2	9						7
	1		4				3	
					4		1	8
3			5				6	
				6		3	9	
6			3	4	8	5		9
				1	7			
			2	9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4	3	2	9	5	1	7	6
9	5	2	6	1	7	8	4	3
6	7	1	3	4	8	5	2	9
1	8	4	7	6	2	3	9	5
3	9	7	5	8	1	2	6	4
2	6	5	9	3	4	7	1	8
5	1	8	4	7	6	9	3	2
4	2	9	1	5	3	6	8	7
7	3	6	8	2	9	4	5	1

미	성	년	자	■	감	지	덕	지
사	금	■	가	■	돌	진	■	푸
역	■	소	용	돌	이	■	수	라
구	설	수	■	풍	■	변	성	기
■	정	자	■	■	별	명	■	■
불	명	예	■	송	■	무	인	도
구	기	■	백	년	해	로	■	리
대	■	진	설	■	열	■	단	도
천	동	지	기	■	제	비	추	리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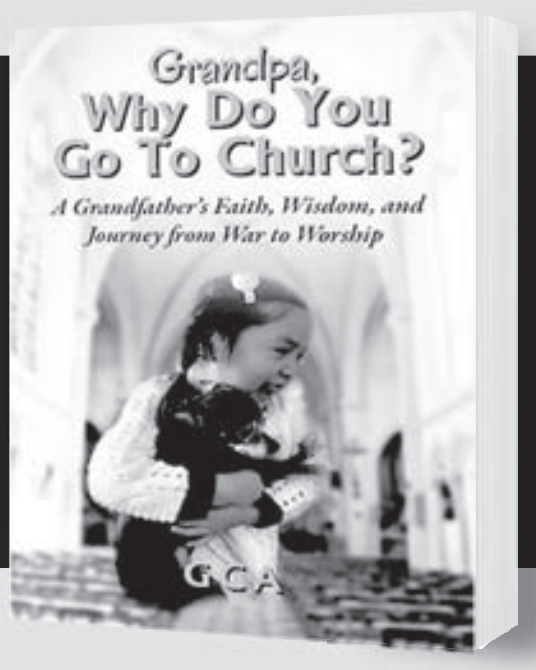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이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